

各 位

京 都 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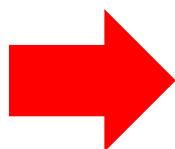
〔 担当：産業観光局観光MICE推進室 〕
TEL : 075-746-2255

京都観光におけるマナー（竹を傷付けないこと）に関する周知要請

昨今、京都市の嵐山地域や伏見稻荷周辺において、石や鋭利な物を用いて竹に文字や記号、図柄等が刻まれる（竹が傷付けられる）事案が頻発しており、竹の劣化や景観の悪化につながっています。日本において、竹を傷付ける行為は犯罪行為（器物損壊罪）に該当し、3年以下の拘禁刑又は30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が科されます。厳に慎んでいただくよう、徹底した周知をお願いします。

京都市では、京都を訪れる観光客の皆様は、市民や事業者と共に、京都の多彩な魅力を維持・継承し、未来を創り上げていく大切な関係者と考えています。つきましては、京都を訪れる際には、地域を思いやり、文化や環境を大切に行動して、快適な旅をお過ごしくださいますよう併せて周知願います。

竹を傷付けないで！



京都市の嵐山地域や伏見稻荷周辺で、竹が傷付けられる事案が頻発しており、竹の劣化や景観の悪化につながっています。竹を傷付ける行為は犯罪行為（器物損壊罪）に該当し、3年以下の拘禁刑又は30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が科されます。厳に慎んで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ます。

To whom it may concern

(Kyoto City Industry and Tourism Bureau)
Tourism MICE Promotion Office

TEL: +81 75-746-2255

Call for Help in Spreading Awareness Regarding Sightseeing Manners (Please Do Not Damage Bambo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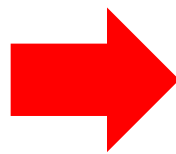
Recently, in the Arashiyama and around Fushimi Inari Taisha Shrine area of Kyoto Cit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of people damaging bamboo by carving characters, symbols, or images into it with stones or sharp objects. Such actions harm both individual bamboo plants and the entire landscape. In Japan, damaging bamboo is considered a criminal offense (property damage), punishable by up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300,000 yen. We ask that you help spread awareness about the need to respect and preserve bamboo groves.

Kyoto City values its tourists, residents, and businesses as vital parts of the city's diverse charm, all contributing to preserving and passing it on to the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we ask everyone to act with consideration for the local community, culture and environment while enjoying their visit to Kyoto.

Don't damage bamboos!



Bamboo damaged by



Deterioration over time

There have been numerous incidents of bamboo being damaged in Arashiyama and around Fushimi Inari Taisha Shrine,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individual bamboo plants and the entire landscape. Damaging bamboo is considered a criminal offense (property damage). Punishment can include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300,000 yen. We ask that you act with respect for the environment in every other area of Kyoto.

相关各方

京都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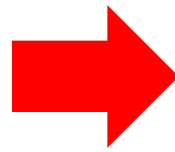
负责部门：产业观光局观光 MICE 推进室

关于京都观光礼仪（请勿损伤竹子）的协助请求

近来，在京都市岚山地区及伏见稻荷大社周边，频繁发生使用石块或锐利物品在竹子上刻写文字、符号、图案等事件（即损伤竹子的行为）。此类行为不仅导致竹子腐坏，也造成景观的严重破坏。在日本，损伤竹子的行为属于犯罪行为（器物损坏罪），依法可能被处以三年以下拘禁或三十万日元以下的罚款。请务必避免此类行为，并协助加强相关提示。

京都市认为，每一位来访的游客都与市民和从事观光事业工作人员一样，是共同守护并传承京都魅力的重要伙伴。因此，恳请各位在游览京都时，体谅当地社区，珍惜这里的文化与环境，以良好的礼仪和行为方式度过愉快、舒适的旅程。

请勿损伤竹子！



在京都市岚山地区及伏见稻荷大社周边，频繁发生竹子被刻划的事件，造成竹子腐坏及景观恶化。损伤竹子的行为属于犯罪行为（器物损坏罪），可能被处以三年以下拘禁或三十万日元以下的罚款。请务必避免此类行为。

前往京都旅遊的各位

京都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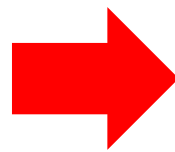
推廣單位：產業觀光局觀光 MICE 推進室

關於京都觀光禮節（禁止損傷竹子）的宣導與請求

近期京都市嵐山地區及伏見稻荷大社周邊頻繁出現用石頭或銳利的物品在竹子上刻寫文字、符號或塗鴉等（損傷竹子）的惡劣行徑，已對竹林生態造成影響，並嚴重破壞當地景觀。在日本損傷竹子屬於觸法行為（毀損器物罪），依法可處三年以下拘役或 30 萬日圓以下罰金，或處以科料(小額刑事罰金)。請各位在京都旅遊期間務必遵守相關規定並協助宣導。

京都市將前來京都旅遊的觀光客，視為與市民及業者共同維護與傳承京都魅力、共創未來的重要夥伴。因此，懇請大家在京都旅遊時，關懷當地、愛護文化與環境並協助宣導,讓旅程更加舒適愉快。

請勿損傷竹子！



京都市嵐山地區及伏見稻荷大社周邊頻繁出現竹子被劃傷的惡劣行徑，已對竹林生態造成影響，並嚴重破壞當地景觀。損傷竹子屬於觸法行為（毀損器物罪），依法可處三年以下拘役或 30 萬日圓以下罰金，或處以科料(小額刑事罰金)。請大家在京都旅遊期間務必遵守相關規定。

관계자 여러분께

교토시

담당: 산업관광국 관광MICE추진

교토 관광 시 에티켓 (대나무 훼손 금지)에 대한 알림 요청

최근 교토시 아라시야마지역 및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 주변변에서 돌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대나무에 문자·기호·무늬 등을 새겨 (대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나무의 열화와 경관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나무를 상하게 하는 행위가 범죄(기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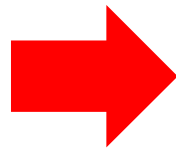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자제해 주시도록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토시는 교토를 방문하는 관광객 여러분을, 시민과 사업자와 함께 교토의 다채로운 매력을 유지하고 계승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토를 방문하실 때, 지역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문화와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셔서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를 훼손하지



교토시 아라시야마 지역 및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 주변 지역에서 대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대나무의 열화와 경관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범죄(기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